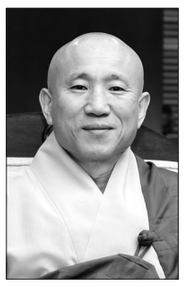
조계종 문화특보에 혜일 스님

상임감찰 태허·중앙박물관 사무국장 응진 스님

호법과장·조사과장도 임명


혜일 스님


태허 스님

조계종 문화특보에 前기획실장 혜일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월 11~12일 총무원장 종책특별보좌관 문화담당에 혜일 스님을 임명했다. 또한 상임감찰에 태허 스님, 불교중앙박물관 사무국장 응진 스님, 호법과장 자원 스님, 조사과장 기원 스님을 임명하며 일부 인사를 단행했다.

종책특별보좌관 문화담당 혜일 스님은 도견 스님을 은사로 1986년 수계(사미계)했다. 백련사, 연화사, 흥천사 주지 및 중앙종회 사무처장,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 사무총장,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총무원 기획실장·문화부장을 역임하고 현재 봉국사 주지를 맡고 있다.

상임감찰 태허 스님은 성연 스님을 은사로 1987년 수계(사미계)했다. 극락암 호국선원(통도사)서 안거 수행하고 백운사 주지를 역임했다. 현재 덕사 주지를 맡고 있다.

불교중앙박물관 사무국장 응진 스님은 정야 스님을 은사로 2002년 수계(사미계)했다. 범어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직지사 천불선원, 남국선원에서 안거 수행했다.

호법과장 자원 스님은 성효 스님을 은사로 2004년 수계(사미계)했다. 범어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동국대 경주캠퍼스를 다닌 뒤 동국대 대학원서 석사 졸업했다.

조사과장 기원 스님은 행돈 스님을 은사로 1989년 수계(사미니계)했다. 중앙승가대를 졸업하고 대원사 동국제일선원, 승가사 제일선원에서 안거 수행했으며, 용덕사 주지를 역임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2015 인구주택총조사 신대승 특별토론회

"연성·견성, 불교정체성 고민할 때"

조계종 조사방식 문제 제기에
"오차 ±0.03% 수준, 문제없어"
범계 등 불자 감소원인 지적하며
정체성 확립 등 미래전략 제시

2015 인구주택총조사에 대해 조계종이 조사방식의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 이번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불교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박수호 덕성여대 지식문화연구소 연구교수는 1월 12일 신대승네트워크가 주최한 '2015인구센서스의 종교인구 변동이 한국불교에 던지는 함의-불교인구, 하락의 사이클에 들어갔나' 특별토론회서 '2015 인구센서스 결과와 불교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 발제를 맡았다.

박 교수는 "불교계가 조사 신뢰성의 문제를 제기하며 조사방식의 불공정성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조사방식이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만큼 큰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 근거로 박 교수는 "조사방식이 전수조사서 표본조사로 바뀌었는데 표본 크기가 전체 인구의 5분의1, 표본오차는 ±0.03%(95% 신뢰수준)에 불과하다. 인터넷 조사방식 도입과 관련해서도 동일한 표본대상에 대해 인터넷 조사를 먼저 권유하고, 미응답자 대상 오프라인 조사를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오류사항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구센서스 조사방식의 개선점에 대해선 "가족 내 종교 다양성이 존재하는 한국사회서 가구주(대표자)가 가족 모두의 종교를 응답하는 방식이 의미가 있는가"라고 물으며 "가구 단위 인구주택총조사가 아닌, 국민여가활동실태조사·한국의 사회지표 등 다른 통계를 통해 종교 관련 조사를 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박수호 교수

이는 구랍 19일 발표된 2015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긍정하는 한편, 구랍 15일 조계종 측이 통계청에 항의방문을 하며 부정한 조계종단의 현실을 꼬집은 것으로 해석된다. 2015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교신자는 762만 명으로, 2005년 대비 약 300만 명이 감소했다.

박 교수는 불자인구 감소 원인으로 △범계, 언론탄압, 권력화·세속화·자본화 등 교계 내 문제 △불자들의 기대욕구를 채우지 못하는 현실 △종교성 부재에 따른 이탈과 수련 중심 신흥종교 부상 △전근대적 신도관리 및 처우 △종단 정치 비대화 △사회적 신뢰 상실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불교의 위기를 체감하지 못하는 조계종단의 무능 및 무책임이 비판받고 있다"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또한 종교 본연의 역할 및 공공성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가불자 위상 제고 및 역할 모색 등 내부조직 재정비를 통한 사부대중 공동체를 재건해야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불교의 정체성에 대해 "연성종교로 갈 것인지, 경성종교로 갈 것인지 미래 전략을 확실히 해야한다"며 "각각의 장단점을 심각히 고민해 선택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연성종교는 정체성이 약화돼 쇠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점, 경성종교는 전면적 재조직화가 필요한 점을 단점으로 내세웠다.

이밖에 불교의 미래를 위해 △불교신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 △조직으로서 불교 종단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찰의 양극화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사회참여를 지속할 것인가 등을 우선적으로 결정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는 윤승용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이사와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가 나섰으며, 윤남진 신대승네트워크 트렌드&리서치센터 소장은 2015 인구센서스 조사결과 요약 브리핑을 맡았다.

박아름 기자

템플스테이, 예약시스템 '간소화'

1월 16일 공식 홈페이지 개편… 기념 이벤트 진행

검색기능 강화·카드결제 도입



개편된 템플스테이 홈페이지

템플스테이 예약 시스템이 더욱 간편해지며, 남녀노소는 물론 외국인까지 템플스테이에 쉽게 참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수암)은 1월 16일부터 템플스테이 홈페이지를 개편, 템플스테이 사찰 정보에 대한 검색기능을 강화하고 온라인 통합예약결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번 홈페이지 개편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카드결제 도입이다. 그동안 개별사찰들의 여건상 카드결제 도입이 어려웠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내국인 뿐 아니라 외국인들도 간편한 카드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검색기능 강화를 통해 △사찰소개 △갤러리 △체험후기 △사찰뉴스 등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수암 스님은 "이번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템플스테이 정보를 더욱 쉽게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 특히 예약결제 시스템 개편은 템플스테이 참가의 저변을 확대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올해 안에 예약결제 시스템이 전국 사찰로 확대될 수 있도록 사찰 및 대중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홈페이지 개편 기념 이벤트도 진행한다. 1월 31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한 사람에 한해 선착순 50명에게 본디나 무드등, USB 합장주, 본디나 여권케이스 등 5만원 상당 기념품을 추첨을 통해 증정한다.

또한 페이스북(www.facebook.com/templestay) 참여댓글 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했다. 자세한 사항은 템플스테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도올 강좌·동유럽 탐방… 달라진 연수교육

조계종 교육원 2017 연수교육 일정 발표

강좌·체험·연수 등 43개 강좌
종사·명덕 위한 특별과정 신설
전법능력 향상 위한 강좌 눈길
자원봉사·인증교육기관 확대도

조계종 소속 스님들의 전문성 강화와 역량 증대를 위해 진행되는 연수 교육이 올해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돌아왔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1월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7 연수교육' 일정을 발표했다.

이번 연수교육은 △'법계과정' 12개 강좌 △'사찰경영과정' 4개 강좌 △'경전과정' 6개 강좌 △'인문·과학·문화과정' 8개 강좌 △체험과정 2개 강좌 △워크샵과정 2개 강좌 △순례과정 국내 4곳, 해외 5곳 등 총 43개 강좌가 개설·운영된다.

올해에는 종단 스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신규 강좌들도 대거 추가됐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철학자 도올 김용옥의 '근현대 중국의 이해와 우리의 미래'로 오는 3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열린다. 2일 동안 8시간에 걸쳐 열리는 도올 김용옥의 강좌에서는 중국 국가 시스템과 권력구조, 역사 등을 총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법계과정으로 새롭게 개설된 〈종단최고지도자특별과정〉은 종사·명덕(승납 30년 이상) 법계인 스님들에게 해당되는 과정으로, 의무교육과정은 아니지만 종단의 지도자로서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불교와 건강·최고경영자로 가는 길·한국사회와 복지·정치와 오늘의 한국사회 등이 구성됐다.

또한 올해부터 모든 법계과정에 '한글 염불의례 실수'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스님들에게 한글 염불의례가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했다.

실사구시(實事求是)형 강좌도 눈길을 끈다. 새롭게 선보이는 체험과정에는 '2박3일에 끝내는 동영상 제작', '수행과 요가' 등 스님들이 현장에서 비로 활용이 가능한 실용적 강좌로 구성됐다.

워크샵 과정에는 '우리사찰신도두배늘리기', '청소년명상지도과정' 등을 개설하여 스님들이 직접 토론하고 참여해 결과를 만들어 가는 교육으로 진행된다.

스님들에게 인기가 높은 순례 과정에도 '몽골불교·러시아, 바이칼 순례', '동유럽 문화탐방' 등이 신설됐다.

또한, 자비나눔의 실천을 연수교육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시설 143개 기관, 교구본사 법인 산하시설 38개 기관, 종단 산하 및 기타 시설 3개 기관으로 총 184개 기관에서 시행한다.

연수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인증교육 연수'는 42개 기관에서 63개 과정을 시행하며, 수료 시 30점의 연수점수를 부여하게 된다. 다만, 인증교육 연수는 연 1회만 가능하다.

조계종 교육원 연수국장 무일 스님은 "종단지도자특별과정은 승납 30년 이상 스님들에게도 사회 전반에 대한 교양 지식을 원하는 스님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전법능력강화 프로그램인 '우리사찰신도두배늘리기' 강좌는 포교원과 논의해 개설한 첫 강좌로 최근 불교인구 감소 상황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원은 스님들의 연수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3년부터 강좌형 연수 교육비 20만원 중 '승납 10년 미만 스님'의 교육비 50%(10만원)를, 일반 스님들은 25%(5만원)를 종단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연수교육 수료 스님들은 2010년 1600명에서 2016년 5000여 명으로 수료 인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조계종 교육원은 "사회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요구를 종단과 승가의 현실에 반영한 연수교육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7년도 연수교육에 새롭게 개설된 강좌의 내용 및 일정에 대한 안내가 담긴 '연수교육 안내 책자'와 '포스터'는 전국 사찰에 배포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

옥천범음대학 2017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옥천범음대학은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기관으로써 1968년 옥천범음회를 최초로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범패"로 지정, 1987년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 지정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불교의식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졸업자에게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회원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으로 지정

신입 및 수료 과정					
모 집		교수내용	요일	시 간	모집인원
1학년	상주권공 I	불공 / 시식 / 예불 / 상주권공 및 작법	월	오후 1시 ~ 7시	30
2학년	상주권공 II	시련 / 대령 / 관욕 및 상주권공재의식 시연	수	오후 1시 ~ 7시	편입생 약간명
3학년	각 배	각배과정	목	오후 1시 ~ 7시	편입생 약간명
4학년	영 산	영산과정	금	오후 1시 ~ 7시	편입생 약간명
불교의식 이론		영산재의 행위전승학습	화	오후 1시 ~ 4시	*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 **옥천범음대학**

■ 응시자격

❶ **입학과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음악, 무용과) 등 일반인
❷ **편입과정** :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자
❸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 1부,
주민등록등본 ····· 1부,
반명함판 사진 ····· 3매,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 1부(해당자)
❹ **전형일정** : **2017년 1월 16일 ~ 2월 17일**
❺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교 행정처 및 홈페이지
❻ **특 전** :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혜택 부여하고, 국내외 공연 시 우선 선발
❼ **입학문의** : 전화 (02)392-3234 / 팩스 (02)392-3239
03721 서울 서대문구 봉원사길 120
홈페이지 : www.okchunbud.kr